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월 10일(월) : 2023년 사업계획(안) 수정 검토 회의
- 1월 11일(목) : 기자촌 재개발 기록화 사업 추가 인터뷰

### ■ 연구원 소식

####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작일: 2023년1월16일(월)부터
- 기부금합산기간: 2022.01.01.~2022.12.31.

영수증 발급과 관련 수기영수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의 및 신년회 개최

지난 1월 7일 16시부터 연구원 사무국에서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2022년 사업 평가 및 2023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초 논의가 진행되었고 향후 주문 내용을 보강해 2월에 열리는 이사회회의 최종 승인을 박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의 이후 2023년 신년회가 열렸습니다. 송년회 때 뵙지 못했던 회원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평안한 계묘년을 서로에게 기원하는 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 ■ 역사속의 오늘

이원록 별이 되다 - 1944. 1. 16



왕성한 독서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이원록이라는 이름에 쉬 입을 떼 아는 체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명이 아닌 수인번호로 바뀐 이름 석자로 우리 역사에 새겨진 사람. 그는 시인이면서 명사수이자 치열한 특수공작 훈련까지 받은 무장투쟁가였다.

물론 반대측에 서있는 이들에게 그는 글쟁이의 가족으로 속내를 감춘 테러리스트였을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유학의 태두이자 일본에서까지 명성을 떨친 퇴계 이항의 후손이다. 그의 형제는 다섯이었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문학적으로 뛰어나 이름을 남긴 이가 넷째 원조다. 소설 <태백산맥>에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문학가로 등장하고, 그의 유고집을 냈던 이원조는 명량하고 재기발랄했던 반면 그는 좀 엄숙하고 우직한 편이었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 유학 후, 1927년에 귀국한 그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날려 버리려던 장진홍 의거에 연루되어 1년 7개월의 첫 옥고를 치른다. 하지만 그가 이 의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눈이 뒤집힌 일본 경찰이 그야말로 저인망으로 훑어서 감방에 처넣은 결과일 뿐, 재판에서도 나온 판결은 "혐의 없음"이었다. 그 뒤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조선일보에 처음 시를 발표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는 '이활'이라는 필명을 썼다. 그런데 광주학생운동의 후폭풍으로 일어난 대구 격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또 옥살이를 한다.

264 수인번호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정설로 돼 있지만 그 속내는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역사를 도륙낸다는 뜻의 육사를 썼고 다음에는 "고기먹고 설사한다"라는 뜻의 육사를 썼다. 전자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현실에 대한 분노라면 후자는 '그래봐야 별 수 없다'는 냉소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한 친지가 "역사를 도륙낸다는 건 혁명의 뜻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평평한 육지로 만든다는 이름을 써라"고 권유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육사로 스스로를 일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평탄케 하는' 노력에 몸을 던진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해방을 보지 못했다. 죽은 뒤에 발표된 그의 시 <광야>에서처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목놓아 불렀으나 그는 초인을 만나지 못했고 <청포도>에서처럼 하이얀 모시적삼 식탁에 올려 놓지 못했다. 1943년 조선에서 체포되어 거꾸로 중국으로 압송된 후 고문과 악형속에 1944년 1월 16일 짧지만 매서웠던 생명을 다한다. 1944년 오늘 이육사가 나이 마흔에 별이 되었다.